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내년 예산 확보 '릴레이'

전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 신성장·대형사업 국비 반영 산업부·기재부 찾아 건의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한달이 내년 부처 예산 단계 국가예산 확보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최훈 행정부지사가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31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미래먹거리 신성장 및 대형사업 국가 예산확보를 위해 재검토를 이어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를 차례로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2022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전북도에서 신청한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 및 산업화촉진사업과 농생명·바이오소재기반 산업화 기술혁신지원사업 2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어, 산업단지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 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지역에 전북도 산단 대개조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북이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그린뉴딜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 에타통과와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실증연구단지 기반구축사업 적정성 재검토 통과 등을 건의했다. 다음으로,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새만금 사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 새만금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

성화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제도 도입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속한 통과지원을 건의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새만금항 인입철도건설, 지능형농기계실증단지조성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와 함께,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지역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북도는 부처단계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오는 4월 7일 최훈 행정부지사, 12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4월 27일에는 송하진 도지사 등 지휘부가 총 출동해 중앙부처 및 국회를 문이 닿도록 방문 할 계획이며,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기재부 등 중앙부처 합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김현철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전북도 대형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하고 있다.

달봉씨의 따뜻한 마음, 도내 다문화가정 든든한 생계비로

1억2000만원 기부금 전달 이달부터 100가구에 매달 10만원씩 12개월동안 지급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김달봉씨(가명)가 기탁한 기부금(생계비) 1억2,000만원을 도내 다문화가정에게 전하는 기부금 전달식이 열렸다.

익명 기부계의 대명사로 떠오른 김달봉씨가 전한 따뜻한 나눔의 정신이 전북지역 다문화가정 100세대에게 든든한 생계 지원 자금으로 전달된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달 31일 전북도청에서 김달봉씨(가명)가 기탁한 기부금(생계비) 1억2,000만원을 도내 다문화가정에게 전하는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이날 전달식은 익명의 기부자로 알려진 김달봉씨가 도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지정 기탁한 1억2천만원을 다문화가정에게 직접 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하진 도지사, 박용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도내 다문화가정 관계자 등이 참석해 김달봉씨의 뜻을 기리고 행사를 축하했다. 기탁금은 4월부터 도내 다문화가정 100세대에게 매달 10만원씩 12개월간 생계비로 지급될 계획이다. 앞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3월 초에 전북도청에 기부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협조 요청했으며, 전북도는 지원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주시와 완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꾸려 지난 3월 25일 기부금을 받을 다문화가정 100세대를 선정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김달봉 씨가 몇 년째 이어온 따뜻한 나눔이 도내 다문화가정에 잘 전달돼 모든 이들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도록 공동모금회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는 "20년간 선행을 이

어온 전주 노송동의 '얼굴없는 천사'에 이어, 또 다른 기부천사 '김달봉'씨의 꾸준한 선행 소식은 우리사회를 보다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번 나눔은 도내 다문화가족에게 큰 힘이 된 불문이고,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지역사회에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달봉씨가 전북지역에 기부한 금액은 지난 2016년부터 4차례에 걸쳐 모두 3억5,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AI기술 활용 코로나19 대응 협력

전주시-네이버, 협약 체결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로 접촉자들 대상 모니터링



전주시와 네이버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청에서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가 좀처럼 수그러지지 않는 코로나19 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협력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주시와 네이버(대표 한성숙)는 지난달 31일 전주시청에서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공공·행정 서비스 디지털화에 대비하고자 '인공지능(AI)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관련기사 4면> 이번 협약은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 ▲디지털 행정 분야 등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비대면 공공·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연일 누적되고 있는 가운데 AI 기술로 접촉자 대상 모니터링을 활용하는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가 4월 중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는

AI가 자기력리 모니터링 앱을 통해 관리할 수 없는 고령자 등에게 매일 두 차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발열, 기침 등의 증세를 점검하고 담당 직원에게 점검 결과를 전송하는 서비스로, 음성인식 정확도는 96%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주시와 네이버는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과 백신접종센터 운영 시 AI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협력사업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국내 최

초로 지자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돕고 있는 '클로바 케어콜'은 여러력 부족한 상황 속에서 기술이 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수 시장은 "국내 최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함께 코로나19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관리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맞춰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주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로 나아가고 시민들이 편리함을 실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첨단 서비스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김제 시의회
GIMJE CITY COUNCIL

언제! 어디서나! 시민에게 힘을 주는
김제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